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

— ‘起來’를 중심으로

崔圭鈔**

< 목 차 >

- 1. 들어가는 글
- 2. 이동사건의 관점에서 본 ‘起’의 특징
- 3. ‘起來’·‘起去’의 성립과 현저성·주관성
 - 3.1 ‘起來’·‘起去’의 초기 의미
 - 3.2 현저성의 관점에서 본 ‘起來’·‘起去’의 비대칭성: ‘過’+‘來/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4. ‘起來’, ‘起來’, ‘起來’
- 5. 결 론

1. 들어가는 글

현대 중국어에서 ‘上’, ‘下’, ‘進’, ‘出’, ‘回’, ‘過’, ‘起’와 같은 몇 가지 방향동사들은 술어동사 뒤에서 방향보어로 쓰일 수 있으며, ‘來/去’와 결합하여 복합방향동사를 구성한 뒤 술어동사 뒤에서 복합방향보어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방향보어나 복합방향보어들은 동작의 방향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향동사들은 동사 뒤에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過’는 동사 뒤에서 완료나 경험을 나타내며, ‘上’은 동사 뒤에서 시작을 나타내며(예를 들어 ‘愛上’), ‘下’는 종결상태를 나타낸다(예를 들어 ‘買下’, ‘定下’). 또한 ‘起’는 ‘上’과

유사하게 시작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說起’, ‘吃起’). 이처럼 방향동사들은 은유를 통한 의미확장을 거쳐 시간 속에서 사건의 어떠한 전개 과정에 대한 상적인(aspectual)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방향동사들로 이루어진 복합방향동사들도 고정형식의 보어로 쓰이면서 문장의 상적인 특징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합방향보어 중에서 ‘下來’와 ‘下去’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며(‘持續下來’, ‘持續下去’), ‘起來’도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동작의 시작이나 완성을 나타낼 수 있다.

- (1) a. 我們嘻嘻笑起來, 互相看: 我調戲你了.
- b. 每當我以為安全了, 想歇下來喘口气, 它就像烏云在我眼前迅速聚集起來.

이처럼 공간상의 움직임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은유를 거쳐 시간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법적 의의를 가지게 되면 상 표지나 시제표지 등으로 문법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上’, ‘下’, ‘進’, ‘出’, ‘回’, ‘過’, ‘起’ 가운데 ‘起’는 ‘去’와의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여 일부 학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起去’의 형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현대 중국어에 ‘起去’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것이 ‘起來’와 대칭을 이루는 형식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起來’와 ‘起去’는 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일까? 필자는 ‘起’가 ‘來/去’와의 결합에 있어서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起’라는 동사가 여타 방향동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起來’와 ‘起去’가 공간상의 대칭성을 잃고 다른 복합방향동사에 비해 쉽게 상적 의미를 취득하고 상 표지로 문법화해가기 용이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본고는 ‘起來’를 자세변화를 나타내는 원형적 의미의 ‘起來’,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起來’, 시도나 가정을 나타내는 주관적 의미의 ‘起來’로 나누어 각각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동사 ‘起’가 비전형적 이동 동사이며 이로 인해 ‘來/去’와의 결합 시에 다른 이동 동사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원형적 의미를 갖는 ‘起來’과 ‘起去’ 중 한 가지 형식만이 상적인 의미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시작상 표지 ‘起來’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 높은 주관성을 띠는 ‘起來’(‘…하자면’의 의미를 가짐)으로 변화 발전하였음을 밝

* 본 논문은 200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高麗大 中文科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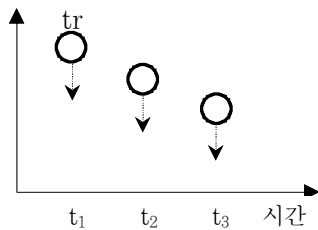
히고자 한다.

2. 이동사건의 관점에서 본 ‘起’의 특징

‘上’, ‘下’, ‘進’, ‘出’, ‘回’, ‘過’는 전형적 이동동사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起’는 비전형적인 이동사건을 나타낸다. 이 점으로부터 우리는 ‘起來’와 ‘起去’가 다른 복합방향동사들과 달리 근본적 비대칭을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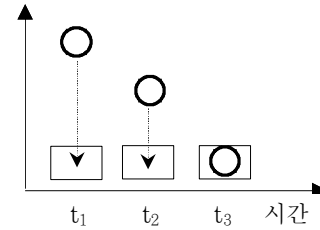
이동사건은 <전경>, <배경>, <경로>, <이동>, <방식>, <원인>의 여섯 가지를 기본적 요소로 하는데, Talmy(1985, 1991)는 이 중에서도 <경로>가 <이동>과 더불어 동사에 융합되고 <방식>은 부사류로 실현되는 부류를 ‘동사를 부여된 언어’라고 하였고, <경로>가 위성어에 의해 실현되고 <이동>과 <방식>이 동사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언어를 ‘위성 틀부여된 언어’라고 하였다(임지룡 2000:28에서 재인용). ‘위성어 틀부여된 언어’에 속하는 중국어에서 ‘上’, ‘下’, ‘進’, ‘出’, ‘回’, ‘過’ 등의 동사 뒤에 부가되는 ‘來/去’는 이동의 <경로>와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화자가 위치한 곳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來’로, 화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去’로 나타낸다.

‘起’의 비전형적 이동성은 수직이동을 나타내는 ‘上’, ‘下’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드러난다. 아래 그림들은 이동동사 ‘上’, ‘下’ 및 이들과 ‘來/去’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동동사가 나타내는 이동도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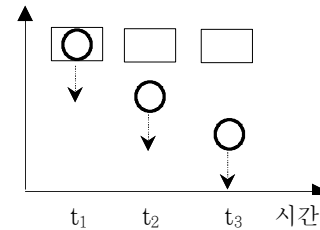
<그림1> 이동동사 ‘下’의 도식

(원은 이동체이며 탄도체(trajector), 점선과 화살표는 이동의 경로와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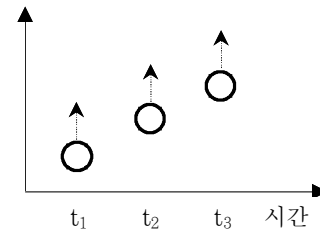
<그림2> 이동동사 ‘下來’의 도식

(사각형은 참조점, 원은 이동체이며 탄도체(trajector), 점선과 화살표는 이동의 경로와 방향 제시, ‘來’가 참조점을 제공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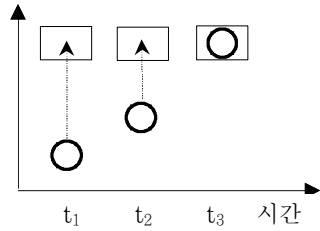
<그림3> 이동동사 ‘下去’의 도식

(사각형은 참조점, 원은 이동체이며 탄도체(trajector), 점선과 화살표는 이동의 경로와 방향 제시, ‘去’가 참조점을 제공해줌)



<그림4> 이동동사 ‘上’의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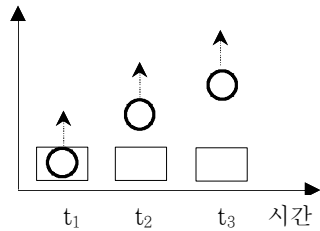
(원은 이동체이며 탄도체(trajector), 점선과 화살표는 이동의 경로와 방향 제시)



<그림5> 이동동사 '上來'의 도식

(사각형은 참조점, 원은 이동체이며 탄도체(trajector).

점선과 화살표는 이동의 경로와 방향 제시, '來'가 참조점을 제공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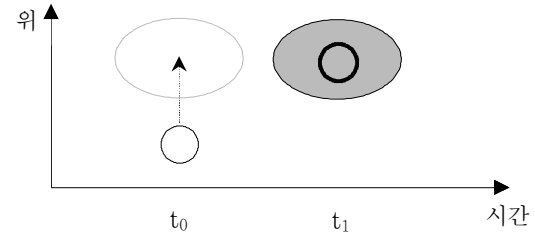
<그림6> 이동동사 '上去'의 도식

(사각형은 참조점, 원은 이동체이며 탄도체(trajector), 점선과 화살표는 이동의 경로와 방향 제시, '去'가 참조점을 제공해줌)

위의 <그림1>-<그림6>처럼 수직이동을 나타내는 '上', '下'와 '來/去'가 결합한 형태인 '上來', '上去', '下來', '下去'는 각각 하나의 이동사건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때 '來/去'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주는 참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참조점은 대개가 화자의 위치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이동사건들은 추가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로 지표(landmark)를 부호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건의 <경로> 혹은 <목표>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수직이동처럼 생각되는 '起'의 경우는 이들과 조금 다르다. 그것은 바로 동사 '起'의 원형적 의미는 이동사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起'는 행위 주체의 자세 변화만 나타낼 뿐 상하좌우 좌표상의 어떠한 이동도 없다(馬玉汴 2005). '起'는 움직임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¹⁾이지 그 자세는 어떠한 위치의 이동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起來'나 '起去'에서 '來/去'는 '起'의 <경로>를 나타내지 못하고 '起'의 후속 사건으로서의 <이동>을 나타낼 뿐이다.

다음은 '起'의 운동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7> '起'의 도식

(타원은 참조점이 아닌 활성화역, 작은 원은 이동체인 탄도체(trajector))

앞서 수직이동의 일종인 '上'과 '下'의 경우 이동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시간축 위에 t_1, t_2, \dots, t_n 등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起'는 오직 사건 이전의 상태인 t_0 와 사건 시작이자 동시에 종결 상태인 t_1 만이 존재한다. 또한 '上'과 '下'는 장소를 지표로 삼을 수 있으나(예를 들어 '上樓', '下樓') '起'는 이동체만 존재할 뿐 문장 내에서 장소가 지표로 제공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上'이나 '下'는 '來/去'와 결합하여 그 이동의 경로를 부각시킬 수 있으나 '起'의 경우 경로를 나타내는 '來/去'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1) 이기동(2001)은 영어 동사 중 장소 이동의 의미는 없으나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부사와 함께 쓰일 때 장소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있으며, 이를 '통합에 의한 이동동사 형성'이라고 하였다. 그는 비 이동동사가 이동동사로 바뀌는 과정에는 소리와 관련된 동사(rattle thump, clatter, roar, rumble, rustle), 빛과 관련된 동사(shine, flash), 움직임의 방법 동사(jump, stagger), 위치모습동사(fly, float)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그의 영어 예와 비교해 볼 때 중국어의 '起'는 움직임의 방법 동사에 해당된다.

	上	下	起
동작 지속성	+	+	-
지표(landmark)	○ (장소)	○ (장소)	-
경로부각 '來/去'와의 결합	○	○	-

<표1> 전형적 수직이동동사 上/下와 비전형적 수직이동동사 起의 특징 비교

이처럼 '起'의 경우 이동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 부가되는 '來/去'의 의미는 마땅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객관적 이동에 있어서 방향의 현저성 및 주관성과 관련하여 '起'와 결합하는 '來/去'의 의미를 분석하고 '起來', '起去'의 문법화 경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3. '起來'·'起去'의 성립과 현저성·주관성

3.1 '起來'·'起去'의 초기 의미

제2절에 제시한 '起'의 도식을 통해 우리는 '起'가 참조점을 가지지 못하며 지표도 취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전형적 이동을 나타내는 '起'와 결합하는 '來/去'는 전형적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來/去'와 다른 의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동동사 뒤의 '來/去'는 동작이나 이동의 경로, 목표를 제시해주는 데, 통합에 의한 합성동사 'V+來/去'는 또한 술어동사 뒤에서 복합방향보어가 되어 공간 이동의 <방식>과 <경로>, <목표>를 나타내어준다. 또한 '來/去'는 은유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공간이동의 경로와 참조물 뿐만 아니라 비공간적 경로와 참조물도 제공하여, 심리적 이동을 나타내거나 시간적 의미를 나타

낼 수도 있다. 그 예로 '醒過來', '暈過去'에서 '-過來'와 '-過去'는 상태변화의 과정 및 결과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때 '來/去'는 심리적 참조점을 제공한다. 또한 '持續下來', '持續下去'에서 '-下來', '-下去'는 '지속'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때 '來/去'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참조시간과 상황시간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참조점 역할을 한다.

'起來'의 경우, 비전형적이기는 하지만, '수직 상향'이라는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때의 '來'는 실제적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초기 '起來'의 예문에서도 드러난다.

- (2) a. 今我用經法起來，師入在內，我義不可臥，不可坐，須我師來，出上高座，說般若波羅蜜，樂乃坐耳。(東漢·支婁迦讖譯《道行般若經》，王燦龍 2004에서 인용)
- b. 昨夜四更起來，呵呵大笑不歇。(《五燈會元》 卷16，王燦龍 2004에서 인용)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는 '起來'에서 '來'가 '오다'라는 원형적 의미로 쓰였다 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起去'를 살펴보자.

어떤 학자는 '起去'라는 조합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가능하다고 보며, '起去'가 성립된다고 보는 학자들 간에도 이것이 술어나 보어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邢福義(2002)에 따르면 劉月華 등(1983)은 'V起去'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起去'가 단독 술어성분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劉月華(1998)에서도 방향보어에 '起去'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 방향동사에 대해 논의한 洪心衡(1957)에서는 '起去'가 단독으로 술어가 될 수 없고, 실사 단독으로 술어가 된다고 해도 '上來'나 '上去'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동사와의 결합능력도 제한적이어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抓起去'와 같은 소수의 예만 있다고 하였다.²⁾ 邢福義(2002)의 경우 보통화와 방언, 역사 자료를 통해 '起去'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전면적

2) 邢福義(2002)에서 재인용.

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결론은 ‘起去’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의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초기의 ‘起去’가 갖는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예문이다.

(3) 歌數闋。戚夫人噓唏流涕。上起去，罷酒。(《史記·留侯世家》卷55, 王燦龍 2004에서 인용)

여기서 볼 수 있는 ‘起去’의 의미는 ‘일어나서 가다’이며 두 가지 별개의 동작으로 구성된 병렬사건으로, ‘起來’와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

馬玉萍(2005)은 동사 ‘起’가 ‘上’, ‘下’, ‘進’, ‘出’, ‘回’, ‘過’와는 달리 이동체가 원점에서 이동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원형적 방향동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점은 앞서 ‘이동사건’의 틀에서도 살펴보았다. ‘起’는 평면 좌표 상의 변화 없이 지면에서 떨어짐을 나타는데, 그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일정하며, 그 변화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동체가 사람인 경우라면 ‘起’의 운동 범위는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다. ‘起’의 운동 방향과 거리를 고려할 때, 만약 다른 이동동사와 마찬가지로 그 방향 의미를 대칭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來’를 부가하는 경우 화자는 서 있어야 할 것이고, ‘去’를 부가하는 경우라면 화자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起來’와 ‘起去’에는 이러한 대칭적 의미가 없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는 ‘起來’에서 ‘來’는 ‘오다’라는 의미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起’라는 자세변화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起去’는 그 결합구조에 있어서도 ‘起來’와 비대칭을 이루어서, ‘起身而離開’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병렬구조로 이해되며 이 때 ‘去’는 첫 번째 운동인 ‘起’ 이후의 또 다른 운동(혹은 이동)을 나타낼 뿐이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起來’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起去’의 경우 ‘去’의 의미가 약화 내지는 소실되어 ‘起來’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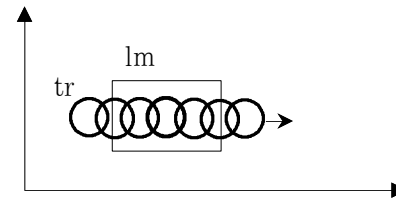
이처럼 처음부터 ‘起來’와 ‘起去’의 ‘來/去’는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 원인은 ‘來/去’ 자체의 특징 때문이라기보다 ‘起’라는 동작이 비록 일정한 방향성은 갖지만 방향의 현저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 문제를 수평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 ‘過來’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3.2 현저성의 관점에서 본 ‘起來’, ‘起去’의 비대칭성 : ‘過’+‘來/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앞서 ‘起’의 운동을 나타내는 도식이 지표와 참조점을 갖지 못함을 살펴보았다. 참조점과 지표는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데 있어 매개나 기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참조점은 현저성이 높다. 그런데 이동사건에 있어서 수평이동은 화자를 공간 참조점으로 할 수 있으나 수직이동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서 ‘來/去’의 현저성이 낮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起來’, ‘起去’ 비대칭의 또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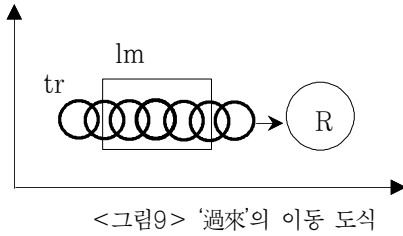
수평이동을 나타내는 ‘過來’의 경우에는 ‘起來’와 사건구조 및 영상도식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전형적인 이동사건을 나타내는 ‘過’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취한다.



<그림8> ‘過’의 이동 도식

‘過’는 ‘이동의 주체가 어떤 장소를 지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도식에서 수평축이 지표면이라고 본다면 화살표는 맨 왼쪽 탄도체로 옮겨가 방향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즉 수평이동이기만 하다면 어느 방향으로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起’는 상하이동만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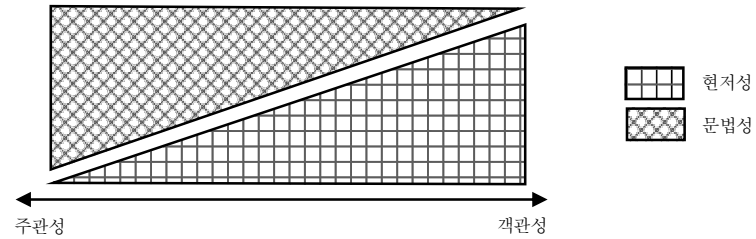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過來’를 살펴보자.



<그림9> '過來'의 이동 도식

'過'의 도식에서 추가된 것은 참조점(R)이다. '來'는 '過'의 이동 방향이 참조점을 향해 다가움을 나타낸다. 만약 '來' 대신 '去'가 들어간다면 탄도체 이동의 시작점에 참조점이 그려질 것이다. 이처럼 '過'라는 이동사건에서 '來'와 '去'는 그 방향성이 현저하다. 하지만 '起'의 이동에서 '來/去'의 역할은 불분명하며, 무엇을 공간적 참조물로 삼을 지도 애매해진다.

현저성과 관련하여 王燦龍(2004)은 '來'와 '去' 중 목표(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來'는 상대적으로 인지하기가 쉬우나 '去'는 목표의 현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起來'와 '起去'의 문법화에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물론 '來/去'의 현저성 차이는 'V來', 'V去'간의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起去'가 왜 다른 'V去'형식보다 더 적게 쓰이게 되고 심지어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起'의 비전형적 이동성으로 인해 '來/去'가 나타내는 참조점 역할이 현저성을 갖기 힘들며 이로 인해 일반적 'V來'형식과 달리 '起來'의 '來'가 '오다'라는 원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起來'의 경우 '來'는 공간 이동을 나타내지 못하는 심리적 참조점만 가진다. 즉 이미 객관적 이동의 의미를 상실한 '來'가 '起'에 부가되어 '起來'를 이룬 것이다. '起來'와 '過來'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저성이 높아지면 객관적 이동의 성격이 강하며, 현저성이 낮으면 이동 의미가 약화되고 주관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객관성이 높으면 허화되어 문법성을 가질 가능성은 낮으며, 반대로 주관성이 높으면 허화되어 문법성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저성과 문법성의 상대적 관계 및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대적 관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0> 현저성과 문법성의 상대적 관계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l 코퍼스에서 王朔의 소설 《看上去很美》를 대상으로 '過來', '過去'와 '起來'의 기능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능	의미	개수
동사 起來	일어나다	19개
V起來 ₁	이동	57개
V起來 ₂	시작, 완성, 지속	75개
V起來 ₃	화자의 주관적 판단	6개
동사 過來	지나오다	11개
V過來 ₁	이동	45개
V過來 ₂	상태변화	7개
동사 過去	지나가다	7개
V過去 ₁	이동	56개
V過去 ₂	상태변화	6개

<표2> 《看上去很美》에 나타난 '過來', '過去', '起來'의 기능 및 의미

물론 한 편의 소설이 현대 중국어에서 '過來', '過去', '起來' 전체적인 특징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약간의 경향성은 엿볼 수 있다. '起來'의 경우 '起來'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過來'의 경우 여전히 이동의 의미를 가진 '過來'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VX來/去'의 형식인데 '起'만이 '來/去'의 대칭적 형식을 취하지 않는 점이나 비이동 의미로의 사용이 이동 의미보다 더

욱 빈번한 것을 통해 이동에 있어서 방향의 현저성과 ‘VX來/去’의 문법화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4. ‘起來₁’, ‘起來₂’, ‘起來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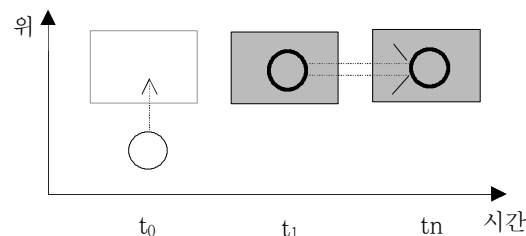
자세변화를 나타내는 성취동사(achievement verb) ‘起’와 결합하는 ‘去’는 ‘起’ 이후의 이동지만 ‘來’는 이미 이동과는 상관없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起來’의 성립은 “‘來’의 의미확장 > 원형의미의 ‘起’와 확장된 의미를 갖는 ‘來’의 결합물인 ‘起來’의 성립 > ‘起’의 의미확장 > ‘起來₂’의 성립 > 주관화를 통한 ‘起來₃’의 성립”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起來’의 문법화 과정에 나타나는 의미확장과정을 살펴보고 ‘起來₁’, ‘起來₂’, ‘起來₃’이 실제 언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코퍼스에서 간략히 조사해보았다.

‘起來₁’에서의 ‘來’는 <경로>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때 ‘來’는 의미로 쓰이는 것일까? ‘來’는 그 자신만의 의미확장 과정을 겪었는데, 이동체가 공간적 참조점을 향해 다가온다는 의미 외에도 어떠한 상태의 변화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 혹은 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심리적 참조점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는 ‘起來₁’의 ‘來’는 일어나는 동작으로 인해 상태 변화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起’라는 성취동사의 특징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성취동사는 [-지속], [+경계], [+종결], [+결과]의 특징을 가진다(Xiao&McEnery 2004). 성취동사의 [-지속] 특징으로 인해 ‘起’는 t_0 에서 t_1 로의 변화만 존재하므로 $I=F$ 이다. 또한 성취동사류는 결과상태를 부각시키므로 최종적 결과 상태에 윤곽부여되어 있다(profiled). 성취동사는 동작 행위가 발생하는데 있어 지속성을 갖지 않는 대신에 동작의 결과가 명확하다. 또한 동작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起來₁’의 ‘來’는 바로 이러한 결과상태에 윤곽을 부

여하는 것이다.

‘起來₁’는 ‘起’의 의미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사 뒤에 부가되어 ‘시작’과 ‘완성’을 나타내는 ‘起來₁’는 이동의 의미가 사라진 대신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시작’과 ‘완성’의 의미는 역시 ‘起’의 동사적 특징에서 이어져 온 것인데, 다의어 ‘起’는 ‘일어나다’라는 의미 외에 ‘발생하다’, ‘(작용을) 일으키다’,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흥미롭게도 ‘起’와 같은 의미를 갖는 한국어의 ‘일어나다’나 ‘일어서다’도 ‘시작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상태 변화는 위치 변화]은유와 더불어 [동작의 시작은 일어섬]이라는 은유 기제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적으로 ‘지속’의미를 갖는 ‘起來₂’는 ‘시작’을 나타내는 ‘起’와 시작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來’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어나는 동작’이 갖는 의미는 ‘출발점에 서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자세가 바뀌는 위치의 변화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起’가 나타내는 ‘시작’이나 ‘상태의 변화’만으로는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뒤에 이미 어느 정도 주관적 의미를 가지는 결과상태 부각의 ‘來’가 부가되어 ‘V起來₂’는 ‘이미 발생한 상태변화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起’와 ‘來’의 의미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起來₃’의 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7> ‘起來₂’의 도식

(회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은 지표가 아닌 활성역, 작은 원은 이동체인 탄도체(trajector). t_0 는 시작 이전의 상태, 이중 점선 화살표는 윤곽 관계를 나타냄. t_1 의 상태가 t_n 에도 동일 상태로 지속됨)

위의 도식은 '起'의 '시작' 의미와 '來'의 지속 의미를 모두 나타내주고 있는데, t_0 는 사건 발생 이전의 상태이며, t_1 은 사건 발생 순간이다. t_1 에서 사건 발생 이후의 상태(시작 상태 혹은 결과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또한 t_1 상태로의 '지속'에 윤곽 부여되어 있다.

'起來'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起來'에서 나타나는 '시작'의 의미가 상적(aspectual)인데 비해 '起來'의 '시작'의 의미는 시간성이 없다. '說起來', '看起來', '聽起來', '吃起來', '做起來', '嘗起來' 등으로 쓰이는 '起來'은 언뜻 보기에는 '起來'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통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

- (4) 妄心、妄念、妄想三個詞，說起來像是一個意思，但是其中大有分別。
 '妄心'，'妄念'，'妄想'이라는 세 단어는 (말하자면) 동일한 의미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ccl 코퍼스³⁾)

위에서 '說'는 주요동사가 아니며, 실제 '말하다'라는 의미도 없다. 또한 '說起來'를 빼도 문장의 구조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제와 진술 사이에 부가되는 'V起來'은 진술 부분의 내용이 화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며, 'V起來'처럼 상황이나 사건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지 않는다. '…하자면', '…한다면'이라는 의미는 상 표지가 갖는 서실적(realis) 기능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우리는 비서실적(irrealis), 화용적 기능을 하며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시해주는 '起來'를 '起來'와 구분하여, '起來'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

5. 결론

다른 복합방향동사와 달리 '起來'는 '起去'와 의미적인 비대칭을 이루는데, 이는

3) 北大漢語語言學研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YuLiao_Contents.asp에서 검색한 예문이다.

'起'가 '上', '下'와 유사한 수직방향의 자세변화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형적인 여타 이동동사들처럼 이동의 경로나 목표, 즉 참조점을 부호화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起'의 비전형적 이동성으로 인해 공간적 의미를 가지는 '來/去'와의 결합이 비대칭을 이루며, 방향적 비현저성은 그 문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다. 우리는 바로 '起'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起來'가 다른 복합방향동사들보다 좀 더 복잡한 의미확장 과정을 거쳐 상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높은 주관성을 가지는 '起來'으로 문법화되었다고 본다. 비전형적 이동성이 'VX來/去'형식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開'와 '來/去'의 결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동 방향의 현저성과 문법성의 상대적 관련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추후에 '起來'와 '下去'간의 대응관계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 參考文獻 >

馬玉汭(2005), <趨向動詞的認知分析>, 《漢語學習》2005년 제6기, 34-39.
 王燦龍(2004), <"起去"的語法化未完成及其認知動因>, 《世界漢語教學》2004년 제3기, 27-37.
 邢福義(2002), <"起去"的普方古檢視>, 《方言》2002년 제2기, 97-107.
 邢福義(2003), <"起去"的語法化與相關問題>, 《方言》2003년 제3기, 205-213.
 이기동(2001), <통합에 의한 이동동사 합성>, 《어학연구》제37권 제1호, 25-40.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20, 23-45.
 Hsiao, Yuchau E.(2003), Conceptualizations of GUO in Mandarin, *Language and Linguistics* 4, 279-300.
 Huang, Su-miao & Hsieh, Shelley Ching-yu(2008). Grammaticalization of Directional Complements in Mandarin Chi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9:1, 49-68.
 Langacker(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 김종도·나익주 옮김(2001), 《문법과 개념화》, 박이정.
 Langacker(2002). *Concept, Image, and Symbol :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2nd

edition); 나익주 옮김(2005), 《개념·영상·상징 - 문법의 인지적 토대》, 박이정.

Xiao&McEnery(2004). A corpus-based two-level model of situation aspect, *Journal of Linguistics* 40 325-363.

< 中文提要 >

本論文旨在從位移事件框架來說明“起來”的語法化、主觀化動因以及“起來”與“起去”的不對稱現象。“上、下、進、出、回、過”等能與“來/去”組合成複合趨向動詞的趨向動詞可以表達位移事件。位移事件中的“來/去”表示移動的途徑或目標等的參照點。但動詞“起”不表示典型的位移事件，因此它不能與表示空間參照點的“來/去”組合。表示“起身”意義的動詞“起來”中的“來”不屬於空間範疇的參照點，“起來”形成初期的“來”表示狀態參照點。

本文把動詞後面的“起來”分成三類，“起來₁”表示空間上的方向，“起來₂”表示時間上的“起始”、“持續”意義，“起來₃”表示說話者對話題的主觀判斷。與其他複合趨向動詞不同，“起來”不能與“起去”成對，並且“起來”更容易發展為體標記和篇章標記。對此問題本文認為動詞“起”的非典型位移特徵造成“起來”的語法化、主觀化動因。

關鍵詞：趨向動詞、位移事件、“起”、“起來”、“起去”、參照點、語法化、主觀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8. 7. 15	2008. 8. 1	2008. 8. 15	2008. 9. 20	2008. 9. 30